

2014
SUMMER
vol.08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를 찾아가는 문화

마주 앉은
우리

낯선아침

마주 앉은 우리

사소한 것들을 시작하는 변화는 마주 앉아 있어도
자연스레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 본문 내용 중 -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를 찾아가는 문화

마주 앉은
우리

낯선아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608-80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 051)745-7244(7262~7264)
FAX : 051)744-7708 www.bscf.or.kr

지금 물만골역에 전시되고 있는 작은 우리집



김현수_ 삶의 의욕상실로 노숙하던 중,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자립하면서 현재는 매입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봉사활동 및 적은 돈을 푼푼이 모아 더 나은 꿈을 이루고자 준비 중이다. 최근 영상동아리 모임과 낮선아침 편집을 통하여 삶의 활기와 재충전으로 푼푼 뭉쳐계신다.

CONTENTS

BUSAN CULTURAL FOUNDATION
2014 SUMMER vol.08



마주 앉은 우리

사소한 것들을 시작하는 변화는
마주 앉아 있어도 자연스레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 본문 내용 중 -

들어가는 글

04 열린 마음으로 마주앉기 장병윤

마주보기 이야기

06 마주보기, 그 아련한 아픔과 일상의 행복 김중덕
08 다섯가지 마주보기로 살아온 날들... 전상석

낮선아침 작품. 하나

10 새벽을 깨우리라 서상훈
11 몸 김원석
12 병신 불휘(根)

커버스토리

13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 조혜인

연재만화

16 나와 너의 여름휴가 예경수

동아리 이야기

20 희망을 조율하다 김현태
22 기타교실을 시작하며... 박우신
24 난타의 신명을 생활의 활력으로 강사 김점숙
25 난타 학생 (가명)강준길

낮선아침 작품. 둘

26 삶 이상두

낮선아침 징검다리

27 희망자활사업단 방문기 송준용
30 같은 방향으로 '마주앉은 우리' 김영광
32 김씨의 익숙한 하루 김OO

책이 있는 여름

34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정영민

낮선아침 정보

36 식사정보
38 응급자리 현황
40 2014 찾아가는 영화관
42 독자후기
44 일자리 정보

제작리뷰, 광고

발행일 2014년 8월 31일 발행인 남송우 편집기획 이민경
편집위원 장병윤 김기태 김현수 서상훈 박우신 이재안 이민아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051-745-7264
표지사진 이재안 내지삽화 예경수 기획·취재 심재현 편집·디자인 김수인
제작 효민디앤피 051-807-5100 www.hyomindnp.com

낮선아침은 아침햇살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낸 말입니다.
깊든 일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경이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향한 끊임없는 모험이 있는 아침입니다. 조금은 낯선 듯,
아침을 더 새롭게 꿈꿀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여행자가 될 것입니다.

마주앉기

지난 몇 달 동안 세월호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바닥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단 하나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채 수백 명의 귀중한 목숨을 수장시킨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부는 대체 무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세월호참사를 부른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이윤의 확대, 비용절감 등이 미덕인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삶을 위기로 내몰습니다.

“어떻게 노숙인이 죽어가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고 주가가 2포인트 떨어지는 게 뉴스가 될 수 있는가?”

교황 프란체스코가 지난해 11월 권고문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시대를 향해 던진 물음입니다. 교황의 우려는 생명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오늘의 사회적 풍조와 고삐 풀린 자본권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글로벌자본은 이미 세계를 장악해 좌지우지합니다. 지난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 본격적으로 작동된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에 정치권력의 종속을 의미합니다. 성장이란 미명 아래 국가권력이 자본에 봉사하는 체제가 된 것이지요. 글로벌기업들은 세계 100대 단위경제 중 절반을 차지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무차별 진격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사회, 모든 가치가 돈으로 규정되는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해가 앞서는 사회, 바로 신자유주의가 세월호참사와 같은 비극의 근원적 원인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앞서면 자연히 생명의 고귀함은 외면당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는 하찮은 게 되고 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공공의 영역을 지켜야 할 국가마저 성장의 허상을 쫓아 규제를 풀고 무차별적 경쟁을 조장하면서 숭한 비극을 잉태하고 위험을 쌓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물신의 시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에 갇혀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석유를 기반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와 풍요는 갈수록 한 쪽으로 쏠리면서 인간의 무한욕망을 부채질 합니다. 성장과 효율에 대한 맹종은 급기야 무차별적 개발로 자연을 훼손하고 상생과 공존이 아름다운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른 바 ‘1%’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막가파식 문명의 질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에도 빈곤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킵푸어가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언제 거리의 삶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낮선아침의 여덟 번째 이야기는 ‘마주 앉기’입니다. 마주 본다는 것, 마주 앉는다는 것은 전쟁터 같은 삶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주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총화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한 시각은 마주 앉기를 근원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숙인에 대해 비뚤어진 시선은 단지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누구든 개인적 실수나 사회적 희생으로 ‘길거리의 삶’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 소치이지요. 말썽 드린 바와 같이 ‘돈에 미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노숙인들이 필연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인에 대해 사회적 편견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코레일과 서울역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노숙인들을 서울역사에서 강제로 몰아냈습니다. 인권침해란 비판도 무시했습니다. 노숙인들이 쫓겨나면서 겪었을 분노나 억울함, 모멸감 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지요. 노숙인들이 내몰린 공간에 기업들의 홍보관

과 판매장이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국가마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 아래 밀려난 약자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지요. 기껏 노숙인을 위한 복지는 탁상에서 통계숫자로 존재할 따름입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노숙인은 자활지원 등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 노숙인들의 지난한 삶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십상이고, 스스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 관공서를 찾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적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태 전 서울시가 ‘노숙인 권리장전’을 만들었습니다.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 16개 항의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시민권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 관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 종교를 이유로 시설이용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노숙인 권리장전은 응급보호에 치중했던 노숙인 복지정책을 넘어서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이 가능하도록 당사자와 서울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마주앉기 위해서는 노숙인 스스로도 당당해야 합니다.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온정을 바랄 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자립의 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노숙인을 통계숫자로 바라보는 ‘탁상 복지’의 병폐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노숙인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이웃으로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숙인을 유령 취급하는 국가기관의 편협한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놔둔 채 우리는 어떠한 발전도 총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굶주리고 헐벗은 것은 재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부족해서라는 경구를 되새길 때 우리의 ‘마주 앉기’는 시작됩니다.



마주보기.



그 아름다운 아픔과 일상의 행복

마주보기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냥 마주본다는 단순한 의미, 아니면 그 또렷한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는 장면이 생각난다. 축구경기를 시작하기 전 양 선수단이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흔한 장면이지만, 눈에 보이는 마주보는 장면을 넘어 사람 서로간의 심리를 알아볼 수도 있고 성격자체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현재 생활현장에서 날마다 마주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싫은 사람과의 마주보기, 그 사람과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은 마주보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마주보기도 있다.

사실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오늘도 작업현장에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상대가 나와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짜증내는 모습에 글을 써내려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지금 걱정되는 게 내일 모레 같이 행사 참여로 나들이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이 된다. 허나 용기를 내려고 한다. 야

외에서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다가가서 대화를 건넌다면 뭔가 좋은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 해본다.

과거 생각을 떠올려보니 새삼 마주보고 살았던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생각과 상념에 가슴 한켠이 조금 아플 뿐이다. 아프다는 건 그때 함께 했던 예쁜 딸과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럴까. 두 아이는 부모님께서 양육하다가 전 아내에게로 6-7여년 전에 맡겨졌다. 바람나서 떠나간 그녀는 떠나간 즉시 한달이 채 되기 전 의사라는 작자와 결혼해버렸기 때문에 아픔보다는 오직 원망만이 마주보기로 보여질 뿐이다.

어렸던 나이, 중3년 내 나이 열여섯살, 모대학 축제때 대학교2학년생인 그녀의 춤추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 6개월 정도 따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부터 겁대가리도 없이 사랑하나라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썸인가 그녀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마주보기가 너무나 불안했다.

그렇게 사랑하며 마주보며 아기를 키우며 살다가, 공부와 생활을 위해 아이는 고향 부모님께 맡기고 그 여자는 학교 졸업을 준비하고 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녀는 그 길로 의대 공부를 마치고 어느 병원에 취직을 했다. 그렇게 마주보고 살다가, 1년 정도가 지난 후 그 여자는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눈이 맞아 마주보기를 거부하는 사인을 보내며 7개월 정도를 잠적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6개월 후 자동이혼이 일방적으로 성립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나 포기하고 당시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에게 이

혼 판결 전에 물어보니 큰 딸은 엄마 따라 가고 작은 아들은 아빠 따라 온다는 걸, 엄마에게 그냥 보냈다. 그렇게 나름대로 행복했던 마주보기가 막을 내리는 사건이었다.

그래도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과는 핸드폰으로 마주보기가 가능하다. 쉽게 통화 할 수있다. 최근에 통화한 것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기전 5월경에 대구로 가서 아들과 단둘이 만나 맛있는 걸 사주며 하루 종일 마주보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계속 마주보고 싶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두 아이들이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그 여자와 그 남자다.

내일도 여전히 자활사업장에서 쇼핑백을 제작하면서 마주보고 싶든지 마주보기 싫든지 관계없이 함께 일을 할 것이다. 싫지만 여전히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과 더 좋은 모습으로 마주보고 싶을 뿐이다. 마주본다는 거, 그것 참, 쉬운 일 아니다. 좋아하든지 간에, 싫어 하던지 간에, 무관심 하던지 간에, 좋아하던 사람들과도 사이가 벌어져서 마주보기가 힘들 때가 흔한데, 마주본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작업장, 사업단의 이름은 담쟁이이다. 하루 하루 천천히 느리지만 높은 벽이 앞을 가로 막는 다손 치더라도 하루 하루 열심히 마주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 갈 것이다.

담쟁이처럼, 하루 씩.

김중덕님과 대화하며 함께 쓴 글입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마주보기로 곱씹으며 동구쪽방상담소 자활사업단 담쟁이에서 하루 하루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다시 꿈꾸는 30대입니다. 소개한 이는 이재안님입니다.

김중덕 _ 아픈 과거를 다시 마주보기로 곱씹으며 동구쪽방상담소 자활사업단 담쟁이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다시 꿈꾸는 30대 청년. 글쓰는 것이 서툴러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원고기교에 힘쓰고 있다.

다섯가지 마주보기로 살아온 날들 여섯번째 마주보기를 고대하며

경북 거창에서 태어난 난 5살에 외할머니 등
에 업혀 경북 김천 금릉군 대덕면 석정동이라는
마을에서 “외할머니를 마주보며” 첫 번째
마주보기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6살 되던 때 기차타고 더 이상 지게꾼 하지
않는다 하고 서울로 상경을 했다. 그 당시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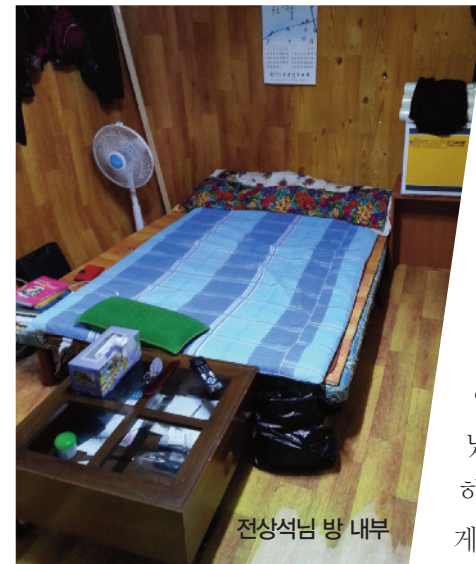
로 자녀에게 유학길을 지원했으나 나는 스스로 성공하지 않으면 다시 고향을
갈 수 없다 결단하고 10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게 된다.

동대문 운동장 헐리우드 극장 앞에서 일꾼을 데리고 나오는 곳인데 그 곳에
서 처음 가게 된 곳이 중국집 그릇 씻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하루 일했지만 하
루만에 쫓겨나서 노숙자 신세가 되어 비니루로 고급의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한달 월급은 삼천환인가... 노가다도 하고 별의 별 일을 다했
다. 대한전선 지붕위에서 올리고 받고 하는 어려운 일도 하다가, 드디어 이발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결국 먼허도 따게 되었다.

그렇게 선배들에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이발 일을 하는 중에 11년 만에 부
모님께 편지 한통 하고 연락을 하게 된다. 5살 나이 많은 누나는 산 넘어 20
살 차이나는 총각과 결혼을 하시고 며칠 후 온 전보에 적혀진 내용은 <부친
별세 아침>, 그 소식을 듣고 그 동안의 어려움에 복받쳐 울며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갔다.

그런데 물어 물어 집을 찾아가니, 머리가 하얗게 샌 어머니는 나를 부
둥켜 안고 우시길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산 넘어 결혼 간 누나가 찾아
와 노발대발하며 말하기를 “너를 보고 싶어서 가짜 전보를 쳤다”며 나를
나무라시는 것이었다. 다음날 온 동네 식구들이 모여 격려의 잔치를 베풀
었으나 나는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하루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1여년 후, 어느 가을에 아버지로부터 한통의 편지가 왔다. 누님
이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나는 마음에 3개월 후
까지 내려가지 않다가 내려가 보니 누님이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
었다. 1년전 보고 싶어 가짜 전보 친 내용에 속아 찾아뵙고 꾸지



람을 주셨던 그 누님의 모
습이 살아생전의 마지
막 “마주보기”, 두 번째
마주보기의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그 자형은 청각장
애인이었는데 말다툼 끝에 던진
목침에 맞아 유명을 달리 하신 것
이었다. 동생으로써 11년만에 만
났던 누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바람에 힘들
게 누님의 맥으로 찾아갔다.

마주보고 앉는 자형은 나의 얼굴도 모르고 눈에 나락만 베고 있었다. 밥상
에 마주 앉은 자형에게 한마디를 던지며 있는데 차라리 나도 죽여 달라고 아우
성치며 난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나절에 누님의 묘에 갔다
가 해질 무렵 고뇌하며 자형과 헤어지고 40년 넘게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는 입
장이다. “마주보는 일이 때로는 40년 동안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28살 되던 겨울 12월 24일 저녁, 9살 연하인 아리따운 여인과
구식결혼식을 올렸다. 아내의 키는 170센티, 너무 큰 키라 결혼식을 올릴 때,
두리판을 받쳐서 사진을 찍을 정도였다. 세 번째 마주보기로써 “마주
보게 된 아내”는 중매로 만났다.

면소재지에서 이발소를 차려서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의 어려움으로 처를 부
모님께 맡기고 혼자 부산 부전2동 천우장 천우그릴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후에는 성립 당구장 지배인으로 일했다. 큰 딸이 5살 때, 말할 수 없
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5살 3살짜리 남매를 데리고 서울 영등포 영1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큰딸이 중학교 1학년 무렵, 4살 연상의 예쁘장한 미용사를 만나 중매 재혼
을 하려는 중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으나 신식결혼을
하고 <마주보기>의 달콤한 나날을 보냈다.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각자 이
발소에서, 미용실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던 중, 칠천만원 정도의 전세를 하
나 장만했으나, 모자랐던 삼천만원을 빌려와서 계약하되 계약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 주었다.

당시 의자가 8개 있는 제법 큰 가게의 영업을
하던 중 장소를 옮기려 팔았으나 얼마 후 그 돈을
합쳐 총 9800만원을 들고 미국 LA로 튀어 버렸
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돈만
주야로 열심히 벌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아내
를 외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네 번
째 마주보기는 막을 내렸다.

옆친데 뒤킨 격으로 <두 남매와 마주보며 살아
가야 하는 인생>이 힘들어도 오직 돈을 위해 열
심히 일했지만, 밴드부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던
이쁘고 이쁜 큰딸이 남자를 사귀어 둘이 학교를
포기하고 가출을 하게 되었다. 3년 만에 나타난
딸은 아들 하나를 낳아 안고 나타났다.

그 때 큰 딸의 나이는 17살, 참으로 안타까
운 마주보기는 다섯 번째 아픔을 나에
게 안겨 주었다. 후에 일본으로 일하러 떠났
던 딸아이는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어디서 무엇
을 하고 살고 있는지 마주보기는 꿈도 꾸지 못
하고 있다. 올해 나이 36살인 둘째 아들의 소식
도 깜깜 무소식이다.

홀아비 혼자 두 자녀들을 공부시키며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고 아직까지 남은 부
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때 부채를 해결하
려 2012년 11월 4일 부산으로 내려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만날 날, 마주보며 살아가는 날을
고대하며 삶을 하루 하루 살고 있다.

여섯 번째 마주보기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고 싶을 뿐이다.

전상석 _ 젊은 시절 이발사 자격증으로 이발소를 운영하
다 인생의 모진풍파를 겪었으나 지금은 동구쪽
방상담소의 영상동아리 활동으로 스마트폰의
세계에 빠져 영상 찍기에 전념하고 있다.

집으로 가는길



새벽을 깨우리라

먹다 남은 찬 국에 밥 한 술 말아 먹고
못 다한 잠의 유혹 뿌리치며
꼭두새벽 일터를 향하는데
양갈진 바람은 허슬한 옷 속을 파고들어
미련 남긴 잠자리 속으로 돌아가길 재촉하는구나.

간사한 생각 의지 약한 내 마음이어
오늘은 어디로 팔려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가방 잠은 손에 힘주고 가슴 짝 편 채
찬바람 들이키며 나는 외친다.
이 새벽 새벽을 내가 깨우리라.

서상훈_ 젊은 시절 일이 잘 안 풀려 생과 사의 기로에 섰을 때 금정희망의집을 만나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으며 지금은 시설 근처 여인숙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 쓰기를 좋아하여 금정희망의집 시 동아리에서 활동 중에 쓴 작품을 낮선아침에 꾸준히 기고중이다.

몸

내 뒤척일 만큼 뒤척여도 밖을 볼
문구멍 하나 뚫어보기 어려웠네
나날만큼 쏘다녀도 안을 들여다 볼
까치발 밑 벽돌 한 장 되기 어려웠네.
비울 건 몸 밖에 없는데
마음이야 무슨 수로 비우나
쌓이는 먼지 어찌 다 닦나
몸을 비우려네
내 몸 투명해져 밖을 보려 하네.
밥통을 어찌 비우나
머리를 어찌 비우나
빈손을 어찌 비우나
몸을 비우려네
비운 몸이 투명해져 안을 보려하네.

김원석_ 현재 금정희망의집에서 생활하면서 취미로 원예, 난 학교를 다니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종교에 관한 글쓰기를 즐겨한다.

병신

하고싶은 일곱 일이
홀로 못 되는
짜증스러 슬픔을 알았습니다.

말썽이 없는—
다행임을 느낀 때야
진히 흐르는 슬픔을 알았습니다.

가슴 답답한 어느 새
여림은 굳어 껍여지고
슬픔보다 서러움을 알았습니다.

늘 항상 물이 괴는 가슴
빛난 이슬 방울에
서러움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불휘와 병신에 대하여 _ 병신이란 제목은 쉽게 쓰지 않는 제목이지만 고교시절 장애를 두고 고심할 때 썼던 글로 단 하루만이라도 두 발로 걷고 싶은 나를 소망을 둔 제목입니다. 지금도 접을 수 없는 소망이지만, '장애 극복'의 새로운 정의를 가져 봅니다. 장애 극복은 벗어나려는 노력이기보다 어떤 상황마다 개념을 갖고 풀어내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가지런한 구속'인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

‘빅이슈’

이 잡지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10개국에서 간행되고 있다. 빨간 조끼를 입은 그들은 지하철역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당당한 자세로 친절히 판매를 한다. 이것은 그들이 판매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들 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 1부에 5,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잡지의 절반인 2,500원을 저축해야하는 규칙이 눈에 띄인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활동은 서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알코올이나 도박 등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중 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사회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부산알코올상담센터)이다.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가 지정하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독전문상담기관이다.

노숙인에게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였던 점은 그들이 알코올을 지나치게 사용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찾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재현 선생님을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제 음주자들은 센터에 방문한 가족들과 함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자신의 문제 축소 및 부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질병의 특성상 함께 오려 하지 않는다면 우선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치료에 앞서 AUDIT라고 하는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를 이용해 알코올 사용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 검사지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알코올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 개입 과정도 달라지는데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를 함으로서 자살에 대한 개입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개별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관심 덕분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알코올 치료 및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다만, 문제 인식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초기에는 레크레이션, 문화체험, 영화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삶에 대한 회복에 동기를 만들어 간다. 이후 과정에서는 친밀감 형성을 토대로 알코올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 유지관리에 따른 재발예방과정까지도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단계별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게 돕고 문제인식과 동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처음부터 치료를 강요 하였다면 지속적인 관계유지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인터뷰 중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회복상태를 잘



유지하고 계신분이 있어 소개해주셨다.

50세 나이의 정○○ 선생님의 이야기다.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쪽방기관으로의 방문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제기로 금주를 시작하셨다. 술이 아닌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계신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천적인 유전병으로 일찍 삶을 끝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보인 일은 아주 특별한 사례이다.

하지만 센터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의 특성 때문이다. 그들과의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을 위해 수개월을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매해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휴식기를 가지는 시간이다. 하지만 휴식기간 사이 문제 음주자가 다시 술을 마시게 된다면 내성으로 인해 다시 이전의 음주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문제인식, 부정을 다루기 위해 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김○○은 술 인식도가 매우 낮아 자기 합리화, 문제 축소, 왜곡된 사고와 해석, 부정적인 신념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를 회복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현재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공백은 노숙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부산진역에서 매주 수요일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노숙인의 재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처음과 현재의 분위기는 매우 달라졌다고 한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는가 하면 다음 달에 또 오겠다는 말씀도 한다. 게다가 노숙인들이 스스로 카메라를 다루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직 둥근 보름달이 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곳을 우리가 채워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비록 울퉁불퉁 하지만 따뜻한 보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얼마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되니 그 사이 그들의 의욕이 상실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였다. 만약 꾸준히 영화를 제작하였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웠다. 사정들이 이러하니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민간의 후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알코올 의존자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글을 정리하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자나 노숙인이 다음 프로그램과 영화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우리들의 노력



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우리는 노숙인에 대해 무섭고 불청결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왜 노숙인이 되었을까 하고 한번쯤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들은 IMF이후 실직하게 되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 정신장애인, 신용불량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과 헤어진 경우 등 저마다 다양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노숙인이 되기 이전에는 누군가의 형제, 아빠, 삼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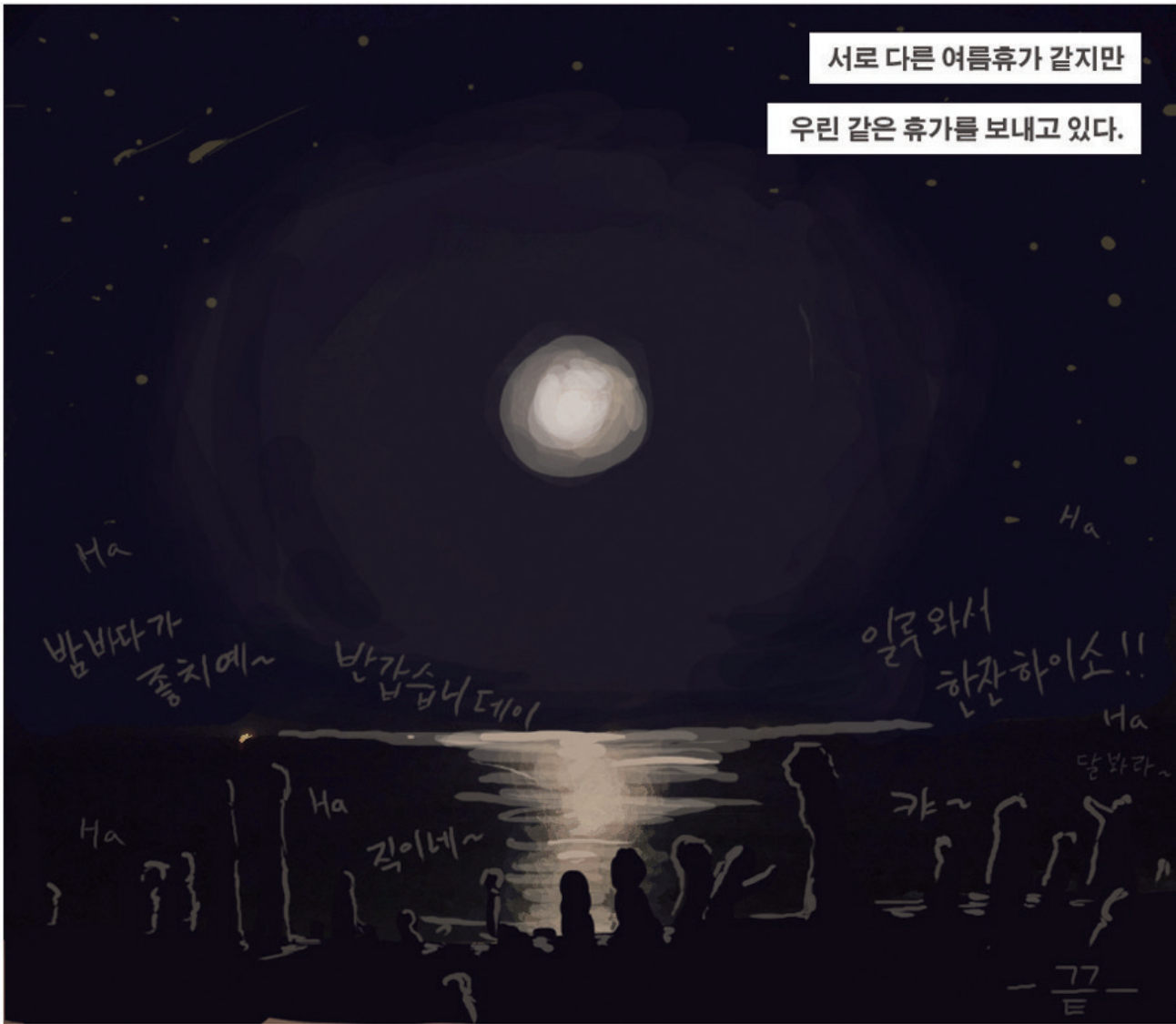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직 둥근 보름달이 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에서 노숙인과 같은 소외된 계층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초승달이 반달이 되고, 반달이 보름달이 되듯이 그곳을 우리가 채워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비록 울퉁불퉁 하지만 따뜻한 보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혜인 _ 현재 부산문화재단 문화나눔 자원봉사단 별무리에서 히포벌로 활동 중인 아기하마를 좋아하는 고고학과 대학생

나와 너의 여름휴가

카툰 : 예경수





예경수_ 그림을 전공했지만 좋은 기회가 없어 아직 날개를 달지 못한 예술가로 늘 창작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느끼면서 살고 싶은 젊은 캐리커처 작가.



희망을 조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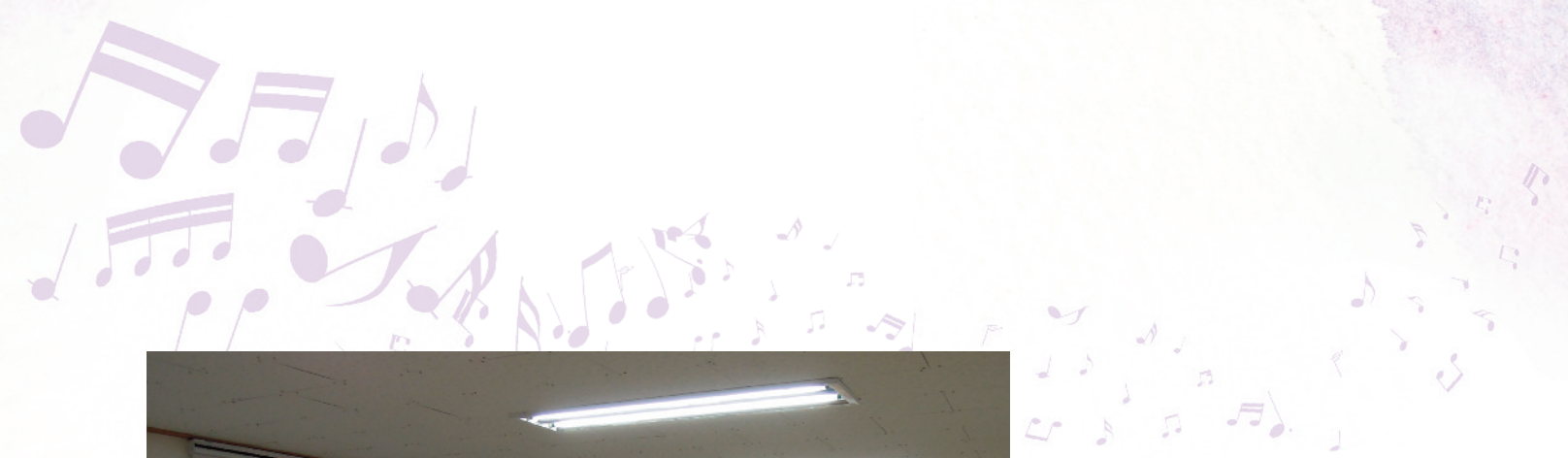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고 꿈과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생이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아니던가. 그중에서도 쪽방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천방지축과 같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인생의 갖가지 고배를 마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을 뿐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노숙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동구쪽방상담소에서 사회복지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마찬가지였다. ‘더럽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하지만 이들에게 한걸음 다가섰을 때, 이들 역시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비록 행색은 초라할지 몰라도 이들 역시 울고 웃는, 때론 화내고 또 즐기기도 하는 내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분들도 과거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딸이었고,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였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쪽방주민들을 향해서 꿈과 희망이 없는 ‘인생의 낙오자’ 혹은 ‘패배자’로 주홍글씨를 낙인찍는다. 하지만 쪽방주민들의 삶이 가난하다고해서 그들의 마음 또한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꿈꾸길 희망하고 있다. 꿈이란 무엇일까?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만한 번듯한 직업을 갖고, 사회적 명예를 얻어야만 꿈을 이루는 것일까? 아니다. 작고 소박할지라도 나 스스로 선택한 기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쪽방주민들도 얼마든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다.

‘나는 그들이 꿈을 꾸도록 돕고 싶다. 그 꿈을 성취할 수 있게 함께 뛰고 싶다.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쪽방상담소에서 일하며 언젠가부터 갖게 된 마음이었다. 내가 단지 의무감에 의해서 2년간 근무한다면 하루하루 의미 없



는 시간의 연속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정작 꿈이 없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사회복지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쪽방주민들이 한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중학교시절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도 기타를 전공하던 중 사회복지원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기타연주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의 의욕만 가지고서 기타를 가르쳐주는 것은 현실적 장벽에 막힐 수밖에 없었다. 레슨에 필요한 교와 기타를 구입해야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필요했다. 그러던 차나 부산문화재단의 ‘동아리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필요한 모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걸 가리켜 ‘천우신조(天佑神助(덧말:천우신조))’라고 하던가...

무더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7월. 부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기타동아리 ‘딩가기타’를 시작하게 되었다. 모집된 인원은 행운을 상징하는 7명. 이들과 함께 ‘딩가기타’의 첫발을 내딛으려고 한다. 물론 뒤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다. 단기간에 만



족할 만한 연주 실력을 쌓을 수 없을 테고, 음악적 완성도도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연주하고자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희망이 아니던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쪽방주민들의 눈에 꿈과 희망이 아른거린다. 기타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분들의 삶과 희망이 조율되길 나 역시 꿈꾼다.

김현태_ 동구쪽방상담소에서 복무중인 꿈 많은 음대생.

p 기타교실을 시작하며...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스텐트 지붕과 콘크리트 벽을 달구어 밤늦게까지 방이 후끈거려 새벽에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생긴 요즈음이지만, 오늘은 기타교실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래 부르고 음악듣기를 좋아했지만 악기를 직접 만지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경험하지 못해 이번 기타교실이 무척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장소인 동구쪽방상담소에 도착해보니 내 이름이 적힌 기타와 기타를 함께 배울 동료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상담소에 출입하면서 얼굴은 알지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이름도 모르는 동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타를 들고 원형으로 앉아 교육을 받으며 대화를 하다보니 친근감도 들고 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격이 삐딱해서 남에게 환한 미소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서툰 나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라서 기타 줄을 잡을 때 힘이 들어가고 무엇인가 부자연스럽지만 열심히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과 기타를 조금 칠 수 있는 동료에게 묻고 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편한 것만, 익숙한 것만 했지만 기타교실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무의식중에 굳어진 안이한 습관과 고집을 깨뜨려서 좀 더 여유롭고 환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타를 제공해주신 부산문화재단과 장소를 제공해주신 동구 쪽방상담소, 특히 우리를 위해 기타를 가르쳐주시는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우신 _ 시력이 좋지 않아 글을 읽는 것이 힘들지만 상담소의 '희망의인문학'과 '낮선 아침' 활동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글을 읽고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난타의 신명을 생활의 활력으로

세상은 가꿀수록 아름답다고 했다. 우리의 심성도 가꾸면 고와지고 여유로워 진다. 잔인한 갑오년의 봄,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빠져 허우적일 때, 우리 고유의 타악기 북의 두드림으로 신명을 일깨울 사랑 그루터기 쪽방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쪽방이라, 작고 비좁은 방이라는 선입전에 나의 마음은 작은 움츠림으로 쪽방 가족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다. 사랑 그루터기 가족들과 북소리로 함께 하면서 나의 작은 가슴은 부끄러움에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북을 신나게 치며 몸을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북소리에 맞춰 머리를 좌우, 혹은 위 아래로 흔들며 뇌파 진동, 뇌 호흡으로 소리명상에 빠져든다. 마쿵 마쿵, 따따 쿵쿵, 텅텅 딱딱 두드리며 삶의 울분을 토해내고 정화시



켜 신체 리듬을 깨운다.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소리로 자극하고,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강력한 무언가에 이끌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주 1회 하는 수업이지만, 이젠 제법 북소리도 한소리가 나며 마음이 맞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브랜드, 자기를 귀하게 여기며 난타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며, 순수해진 자신을 북소리로 다독여 더 큰 사랑의 작은 씨앗을 싹틔우려 한다.

생활이 힘들지만 여유롭게 이겨내시는 사랑 그루터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두드림으로 고운 심성 일깨우며 두드림의 울림으로 세상을 두드리고 모든 사람들의 심성을 가꾸는 사랑 그루터기, 문화 그루터기로 자리하고 싶다.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면 생명력의 변화로 내가 원하는 데로 다 이루어진다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명언이 생각난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 되도록 도와준다네.”



난타를 통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로 풍류를 즐기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김점숙_ 연세구청 평생학습센터 배달강사, 학부모 평생교육원 독서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진구쪽방상담소와 인연을 맺어 난타교육에 힘쓰고 있다.



다사다난한 한해가 어느덧 반해가 저물어가고 있군요. 저의 이름은 장춘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의지 할 곳 없는 환경에서 자라 왔습니다.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정에 의논과 대화조차도 할 사람이 없다보니 같이 일 하던 분들과 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피폐해져가는 저를 보다보니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를 바라며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행만 닥쳐왔지요. 그러다보니 매일같이 한탄 속에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길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수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옛날에 알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지요. 오랜만에 그 친구와 얘기를 주고받는 끝에 저에게 사랑그루터기(부산진구쪽방상담소)는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선생님께 제가 살아온

(가명)강준길_ 진구쪽방상담소와 인연을 맺은 지는 약 4년 정도 되었으며 매사 열정이 많고 적극적이며 모든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로 통한다.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나니 정성껏 대해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그 길로 몇 년을 사무실에 다니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남식 소장님과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조언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권정미선생님 도움으로 1년 동안 알코올치료 교육프로그램도 받았고 지금도 부산알코올상담센터에서도 연락을 주시며 여러모로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도 상담소 프로그램을 통해 김성국 선생님 도움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상담소에서 추천하는 보금자리 집도 가지게 되었고 과거에 생활했던 모습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며 몸도 마음도 매우 가볍습니다. 지금은 상담소 추천으로 난타프로그램도 참여중입니다. 과거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탓인지 몸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지만, 난타교실 선생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껏 가르쳐주시며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로 더욱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오랜 기간이었지만 제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상담소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호기의 심신으로 앞으로도 좋은 여생을 살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

낮도 길고
밤도 길다.

겨울도 길고
여름도 길다.

하루살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상두_ 지금까지 직접 쓴 시가 100여점에 달하며 힘든 삶속에서도
글쓰기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그들만의 일터 **담쟁이**

온화한 미소를 보였다. 이날 함께 간 부산문화재단 담당자가 손수 만들어본다며 종이가방을 접고 있을 때,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표정이 그랬다. 아빠가 딸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오빠가 여동생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한 기운이었다.

‘아, 다르지 않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잠시나마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색안경을 끼고 이분들을 바라본 건 아니지만 보통의 사람들과는 어딘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난 7월 23일 부산시 동구 범일동 수정산 자락에 있는 ‘담쟁이’를 찾았다. 이곳은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와 동구쪽방상담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4년 희망자활사업단’ 가운데 하나로 7월 14일에 문을 열었다. 종이가방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일곱 분이 일을 하고 계셨다.

‘자활’이라는 말에 ‘담쟁이’가 어떤 곳일까 궁금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그냥 평범한 공장 같다는 느낌이었다. 평소 업무 때문에 가내수공업 형태의 작은 업체를 자주 다니는데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종이를 접고 붙여서 가방으로 만드는 업무



『

‘담쟁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 어떠한 이유로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하신다. 이 분들이 진정으로 적응해 나가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타에 별다른 설비가 없을 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의 모습이였다. 일하시는 분들 또한 낮선 이의 방문에 아랑곳 않고 그저 자기 일을 할 따름이였다.

동구쪽방상담소에 소속되어 ‘담쟁이’의 운영을 전담하는 서원섭 사회복지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은 일곱 분이 일하시지만 두 배 정도로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는 그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조금만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지면 이분들도 충분히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나는 지역자활센터나 쪽방상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잘 몰랐다. 또 노숙인이라 하면 부산 역이나 서울역 등지에서 봐왔고 쪽방이라 불리는 곳도 방송을 통해 한두 번 본 게 고작이다. 그냥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세상이었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다 ‘담쟁이’ 방문을 통해 그들의 일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는데, 이분들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가 아직까지도 크게 남아 있다. ‘담쟁이’를 가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관심 밖의 세상일 테니 말이다.

‘담쟁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 어떠한 이유로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하신다.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가신청을 하고 구청의 인증을 거친 다음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후라야 비로소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통하는 거라 생각한다. 그분들을 위한 교육도 시스템도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을 통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다.

‘담쟁이’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망설여졌다.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 언짢아하지는 않을까? 그분들의 업무가 마무리될 무렵에 종이가방을 직접 접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았다. 어떻게 하지, 잠시 두리번거리던 찰나에 한 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접는 시늉을 하면서까지 말이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다가가면 되는 것일.’ 그랬다. 나 스스로가 먼저 마음을 통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까 고민했던 것

이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면 되는데 말이다. 그분과 나눈 대화는 몇 마디가 전부였지만 그분을 통해 다가서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서원섭 사회복지사에게 ‘담쟁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더라. 이분들이 있기에 그냥 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밖에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마냥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행하는 것이어야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담쟁이’에서 만난 분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그저 사회에서 ‘노숙인’ ‘쪽방촌’ 따위의 말로 조금은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럼 나는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담쟁이’ 방문을 마무리했다. 다음 날 양산의 어느 한 계곡으로 직원 야유회를 간다고 했는데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다.

‘담쟁이’ 같은 곳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보통 자활공동체 같은 사업에 참여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나와야 한다.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담쟁이’ 같은 자활사업의 경우 이곳에서 안정적인 참여 후에 공동체로 사업단을 맡아서 소수 인원이 독립하게 되더라도, 자생적인 일자리로 정착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 공동체적 유대감을 통해 상호연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지원과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담쟁이’인 것이다. 노숙인분들을 지원하는 복지기관과 자활센터,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으로 의료혜택과 수급 선정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복지서비스를 넘어,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관건이다. 실제로 지역사회 안전망과 의료체계와도 연계되어 꾸준하고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만들어진 ‘담쟁이’가 지금껏 해오는 것처럼, 주거취약층과 노숙위기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별도의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여, 노숙인들에게는 병원 입원이나 수급뿐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심심이 안정된 가운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박한 꿈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 본다.

송준용_ 미디어 회사에 재직중이며 평소 문화나눔에 관심이 많아 부산문화재단 자원봉사단 발무리에서 활동중인 그의 별명은 바로 용아벌





같은 방향으로 ‘마주앉은 우리’

지난 6월 초,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공간은 1주간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찢끔찢끔 새는 빗방울에 식사, 영화감상, 강연행사에 불편함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곧 들이닥칠 장마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스름한 금속 벽에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지고, 천장은 한층 더 높아져 선선한 바람이 맴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박한 손들이 하나둘 모인 덕분에 새롭게 단장한 이곳. 여기에 의도치 않고, 생각지 못한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영화관’은 출입구에 스크린 하나, 맞은편에 스크린이 또 하나, 그 양쪽 스크린을 기준으로 가로로 배치한 테이블 덕분에 흔히 많은 감상 방식을 요했습니다. 서로 마주앉아 있지만 영화를 보기 위해선 앞사람과 다른 방향을 계속 응시해야만 하는, 약간은 머쓱(?)한 배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보수공사 중에 테이블을 세로로 배치하게 되면서, 고개만 약간 돌리면 마주앉은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6명이 정원인 테이블에 한쪽 방향을 바라보던 3명씩 영화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6명 전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영화이야기를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주고받음의 변화는 하나의 테이블을 넘어 다른 테이블에도, 그리고 이따금 상영환경을 체크하러 상영공간을 돌아다니는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무슨 영화를 트느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들어 줄 수 있느냐?’, ‘어떤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고생한다. 고맙다’ 등. 저는 당황하여 매번 우물쭈물하고 말았지만, 다행히 말을 건넨 노숙인들의

미소에는 웃음으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의 마지막 주, 영화 상영을 마치고 첫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크밴드 ‘5월 11시’를 초청하여 라이브 공연을 연 것입니다. ‘찾아가는 영화관’ 스태프들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연에 기대 반, 불안 반인 심정으로 행사준비를 마쳤고, 단정하게 입장한 포크밴드는 노숙인들의 연령층을 고려해 7080 음악으로 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스태프들과 포크밴드의 기대만큼 노숙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허나 포크밴드는 눈웃음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연주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보컬의 열창과 한껏 흥겨워진 쥬배의 두드림, 꼬불길을 걷는 듯한 멜로디언의



선율로 공간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때, 저쪽 멀리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난 밴드의 보컬이 ‘형, 누나들 최고야’라고 너스레를 떨기 시작하자, 소곤소곤 알게 올리는 웃음소리가 번져갔고, 박수소리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공연이 절정에 이른 순간, 많은 노숙인들이 포크밴드와 함께 호흡하며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마땅한 단어로 바꿀 수 없는 감흥을 느끼며,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앵콜’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연 이후 지난 상영회들을 더듬어보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노숙인들의 변화를 얻으려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좋은 영화목록을 추천하며, 상영 시스템을 그때그때 최적화하고, 영화감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동선을 최소화하기. 그리고 먼저 인사를 건네며, 다과와 음료를 전달해드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면 즉각 달려가서 듣기. 생각하다 아차 싶었던 건, 저는 매번 같은 방법으로 마치 지금이 언제나 최신인 것 마냥, 스스로 변화할 생각은 없으면서 마주 앉은 그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는 매주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함께 보며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망각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누구도 의도치 않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근래의 작은 변화들 앞에서, 저는 소중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이해와 요구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소해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것들로 시작되는 변화는 마주앉아 있어도 무언가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 자연스레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재를 쓰는 오늘, ‘문화가 있는 날’ 두 번째 행사로 노숙인들의 노래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신청자가 모지랄까 걱정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려참가자 모두 노래 1절만 불러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웬걸요. 상영공간에 일하시는 한 노숙인께서 미리 나눠준 작고 사소한 참가신청 쪽지 덕분이었습니다.

김영광_모퉁이극장 기획팀장. 현재 ‘찾아가는 영화관’ 스태프로 참여 중이다.



김씨의 익숙한 하루

(제공단체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월

- ▶오전 10:30 부산진역 카스테라빵 1, 요구르트 2

화

- ▶오전 07:20 광안리 남부민교회 경비실 300원-400원-500원 (선착순)
- ▶오전 09:20 매달 첫 주 화요일 양정역 2번 출구 양정교회 주차장 경비실 500원
- ▶오전 10:00 초량역 5번출구 삼일교회 500원
- ▶오후 01:00 못골역 4번출구 성결교회 500원



수

- ▶오전 09:20 대티역 1번출구 산정현교회 500원 (선착순50명)
- ▶오전 10:00 첫째주~셋째주 양정역 2번출구 제일교회 1,000원
- ▶오후 01:30 부산진역 7번출구 수정교회 육개장사발면 1, 요구르트 1
- ▶오후 02:00 연산동 양문교회 예배 후 1,000원



목

- ▶오전 09:30 좌천역 1번출구 부산제일감리교회 커피1, 육개장사발면1
- ▶오전 09:00~09:20 매월 마지막주 부산진역 1번출구 성일교회 새우탕면 1

금

- ▶오전 09:20 경성대 부경대역 5번출구 용호동 한빛교회 1,000원
- ▶오전 11:00 거제역 8번출구 법원 뒤 무상사 식판식사 (번호표 확인)

토

- ▶오전 08:30 매월 마지막주 체육공원역 2번출구 대지장로교회 예배 후 1,000원 지하에서 아침제공
- ▶오전 11:00 거제역 8번출구 법원 뒤 무상사 식판식사 (번호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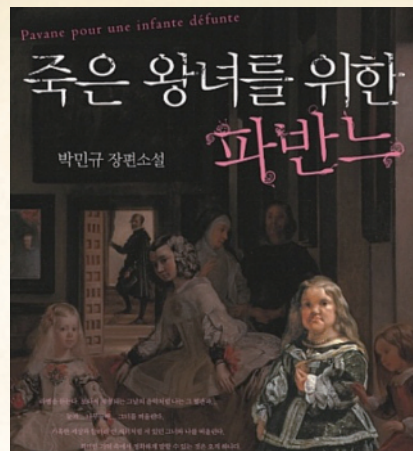
일

- ▶오전 07:00 양정역 2번출구 양정중앙교회 예배 후 1,000원 지하에서 국수 제공
- ▶오전 09:00 온천장역 5번출구 소정교회 9시 예배 후 2,000원 10시 20분에 점심제공
- ▶오후 02:00 남포역 6번출구 화평관 예배 후 1,000원

평균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예담. 2009



“누군가를 뒤쫓는 순간에도 세상 평균은 그만큼 올라간다”

당신도 평균, 그 이상한 단어 때문에 밀려났나요? 왜 그 사람은 평균에 속하는데, 당신은 평균에 속하지 못하나요? 대체 평균이 뭐기에 누구는 속하고 누구는 속하지 못하나요. 화나지 않나요. 지금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은 그게 평균적인 삶이 아니래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평균적인 삶이 아니래요. 대체 왜 아니라는 걸까요?

평균이란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말인데, 그 기준점의 잣대를 어떻게 정하나요? 기준이 있다는 건 양분된다는 걸 전제로 하구요. 그래서 노숙자, 장애인, 못난이, 가난이란 말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요. 만약에 사람이 제 모습 그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런 말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부터 모르던 말들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런 말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들 때문에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걸 느끼지만 거기서 달아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얹히고 설킨 관계들로 인해 나는 정말로 그렇게 보잘 것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겁니다.

당신에게 소개할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소설도 지금 말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어쩔 당신이 읽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책은 못생긴 여자와 그녀를 사랑한 여자의 얘가지요. 얼핏 보면 연애소설로 오인할 부분이 많은데, 꼼꼼히 읽다보면 단지 연애소설로만 읽기엔 한없이 불편한 소설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소설은 소수자를 위한 연서 같기도 하거든요. 못생긴 여자, 사랑이라는 두 가지 코드를

교묘히 섞어 스펙을 요구하고 예쁘고 좋은 것만을 요구하는 이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난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고, 또 당신이 읽고 조금 더 당당해지면 좋겠어요.

주눅 들지 말아요. 노숙자가 뭐 어때서요, 막말로 죽을 때까지 노숙을 할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당신도 당신이 꿈꾸고 그리워하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참 무서워요. 마치 원래부터 노숙자, 못생겼다는 전제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실력, 마음, 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안 된대요. 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중요해진 건가요, 정말 걸만 멀쩡하다면, 속은 아무리 썩아터져도 다 괜찮다는 건가요?

근래 사회면 기사의 단골 소재는 불륜이 아니라 살인 혹은 폭행이에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실리는데 이슈화되지 못해요. 설사 이슈화된다고 해도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려요. 진실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벌어질 수 있는 일들로 취급해버려요. 살인, 폭행이 그렇게 쉽사리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벌어져도 괜찮은 일인가요.

중요한 건 외모가 얼마나 멋있고, 부유한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못생겼는지, 가난한지를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나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길 하는 건가요? 다른 왜 좋은 것과 나쁜 것, 양등분하려 하죠? 세상은 그렇게 질서정연하지 못해서 양등분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뒤죽박죽 엉망이어야 좀 자유스러워요.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살인도 폭행도 일어나데, 뒷집 지고 있으면 어찌자는 건가요? 지금은 아부가 아닌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때예요. 부자와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을 쳐다보던 눈을 사회적 약자에게로 돌려서 바라봐야 해요. 그들이 평균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사회는 기형이지요. 그것도 아주 엄청난 기형이에요. 1%의 부자들 때문에 나머지 삶들이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죽고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 방치가 오래되면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세상을 중요하게 만들고, 결국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은 정말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세상이 당신을 코너로 몬다면 아마 당신도 별 도리 없겠지요.

정영민_ 삶을 꿈꾸고 삶을 제대로 펼쳐려고 최근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여자. 여전히 책에 사물에 더 집중하고 있다.

“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까지 증오하면,
삶은 너덜너덜해지고 말테니까요.
”

“모두가, 어제보다 한 번 더 자위를 해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한 번 더 자위를 해대는 세상’에 살아서 당신은 노숙을 누군가는 불구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보태지 맙시다.

당신이 노숙을 하는 것 역시 한 때 이 미친 세상에 당신이 동조한 탓입니다. 만일 당신이 동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 보단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평균 그런 말을 몰라요. 평균적인 삶을 산 적도 없거니와 그 평균에 내 삶을 소비하기 싫어졌어요. 나는 지금의 내가 좋구요. 내가 나서 다행인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도 나는 나답게 고집스레 살래요.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까지 증오하면, 삶은 너덜너덜해지고 말테니까요.

밥 먹으며 씹을 하나에 스민 햇살을 잘게 씹는다. 콩알 하나에 배인 흠내음, 농부의 손길 되짚는다. 삶은 소화하는 것처럼, 밥을 씹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인생을 삼키는 일은 아닐까? 더운 밥 한 주걱 퍼주는 손길이 다정하다. 식판 위에 정성을 수북이 담고, 사랑을 한 국자 퍼 담아 오늘도 감사로 배를 채운다. 밥을 먹었지만 마음이 부른다.



식사 정보



아침

매주 수요일 06:30 두춧대교회 국밥
매주 금요일 06:30 두춧대교회 국밥



점심

월 10:30 기장 살렘회복선교센터 카스테라1, 요구르트2
12:00 물만골 사랑나라 식판식사
화 12:00 밥퍼 식판식사
12:00 대한적십자(매월 셋째주) 식판식사
수 12:00 김해 가나안교회 식판식사
14:00 찾아가는영화관 빵, 커피
목 12:00 신빈회 식판식사
금 12:00 밥퍼 식판식사
토 12:00 김해 가나안교회 식판식사
일 12:00 무지개 식판식사

저녁

월 17:00 광장밥상 국밥
화 17:00 밥퍼 국밥
18:30 개인(매월 2번) 수제비
수 17:00 밥퍼 국밥
목 16:30 수영로교회 식판식사
금 17:00 명장동 예인교회 국밥
토 17:00 한우리 식판식사
일 17:00 신빈회 식판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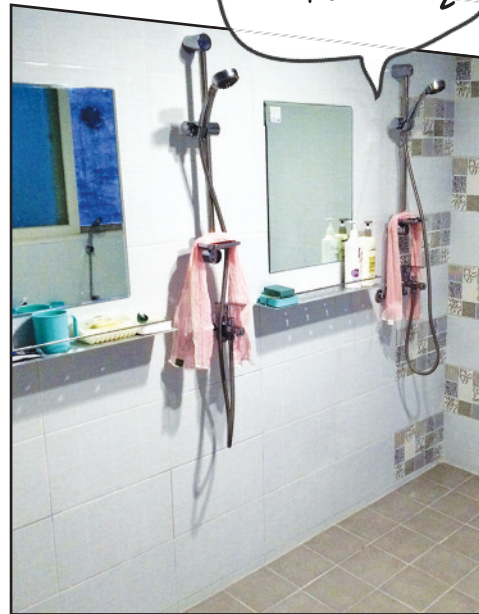
부산진역
8번출구
무료급식소



1. 응급잠자리 설립일자 : 2008년 1월 2일

2. 응급잠자리 면적

순서	장소	단위(mm)	넓이(㎡)	평수	취침 가능인원
			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1	취침실	7600×11800	89.68	27.12	27.12
2	코골이방	2513×5800	14.58	4.41	4.41
3	신규방	2400×3000	7.20	2.18	2.18
4	여자방	3000×3000	9.00	2.72	2.72



3. 응급잠자리 근무자

- 가. 직원 : 2명
- 나. 자활근로자 : 3명

4. 응급잠자리 입소조건

- 가. 입소대상
 - 1) 본 시설에 입실을 희망하는 자
 - 2)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되어 온 자
 - 3) 기타 시설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이용제한 대상

- 1) 당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 1주일간 이용정지
- 2) 건강(재)검진 미검자 : 건강(재)검진 결과 확인 시까지 이용정지
- 3) 음주자 : 당일 이용 금지
- 4) 약물 의존자 : 약물치료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까지 정지
- 5) 시설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자 : 3개월 이용 정지
- 6) 금품갈취자, 기물파손자, 폭행자 : 3개월 이용 정지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익일 관할 동/구청에 통보
- 8) 기타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자

5. 응급잠자리 이용현황

(2013년 12월 현재)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평균인원	50	49	39	29	25	21	21	21	22	16	17	18	328

6. 응급잠자리 위치 및 연락처

- 가.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 (전포2동 667-3)
- 나. 연락처 : 051)463-1127
- 다. 위치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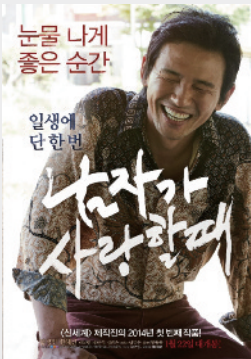
2014 찾아가는 영화관 9월~10월 상영작 안내

- 상영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2시
- 장 소 :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영화_ 소원
감독_ 이준익
출연_ 설경구(동훈), 엄지원(미희)
상영일_ 2014년 9월 3일

영화 (소원)은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감동을 담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소원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세상의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 마음에서 출발한 영화는 부디 잘 살기를 바라는 바람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이 담긴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건넨다. 그리고 비록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_ 남자가 사랑할 때
감독_ 한동욱
출연_ 황정민(태일), 한혜진(호정)
상영일_ 2014년 9월 10일

나이만 먹었을 뿐, 대책 없는 이 남자, 아직도 형 집에 얹혀 살며 조카한테 뽕 뜯기는 이 남자, 빌려준 돈은 기필코 받아오는 이 남자, 목사라고 인정사정 봐 주지 않는 이 남자, 여자한테 다가갈 땐 바지부터 내리고 보는 막무가내 이 남자. 평생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 남자가 사랑에 눈 뜨다! 일생에 단 한번, 남자가 사랑할 때. 거칠게 보이지만 속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계산 없이 살아가는 한 남자의 서툰 진심에 힘을 신는다. 이 남자의 구애는 기댈 데 없는 한 여자를 속 깊게 보듬는, 진한 사랑으로 거듭난다.



영화_ 내 강파같은 애인
감독_ 김광식
출연_ 박중훈(동철), 정유미(세미)
상영일_ 2014년 9월 17일

싸움 하나 제대로 못하지만, 입심 하난 끝내주는 삼류건달 동철. 아직 가오만큼은 살아있다. 그런데 걸보기엔 참하게 생긴 옆집에 이사온 여자가, 날 보고도 전혀 기죽지 않는다. 웬걸 이 여자 바락바락 대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 여자 어쩐지 잘해주고 싶다! 열혈 취업전선에 뛰어든 강만 센 여자 세진. 큰 뜻 품고 구한 반지하 방, 그런데 걸보기에는 강파 같지도 않은 강파가 옆집에 살고 있다. 웬걸 이 남자 '옆방여자'라 부르며 교박 교박 아는 척을 한다. 왠지 싫지 않다! 깡 없는 강파와 강만 센 여자, 두 남녀가 매일 부딪치는 격렬한 반지하 반동거가 시작된다!



영화_ 오직 그대만
감독_ 송일국
출연_ 소지섭(철민), 한효주(정화)
상영일_ 2014년 9월 24일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 여자... 보고 싶습니다. 그 남자... 잘나가던 복서였지만 어두운 상처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철민.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늘 밝고 씩씩한 정화. 좁은 주차박스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철민에게 꽃 같은 그녀, 정화가 나타났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두 눈을 감으면 선명해지는 그 얼굴, '오직 그대만'. 네온사인 빌딩숲과 남루한 뒷골목 등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철민과 정화의 사랑은 관객들의 진심을 울린다.



영화_ 육혈포 강도단 감독_ 강효진
출연_ 나문희(김정자), 임창정(방준석)
상영일_ 2014년 10월 1일

8년간 힘들게 모은 하와이 여행자금을 은행 강도에게 빼앗긴 세 명의 할머니는 은행을 털기로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전문은행강도를 협박해 비법을 전수받기 시작한다. 용감무쌍한 평균나이 65세 할머니들의 기상천외한 은행강도 특공훈련이 시작되고 드디어 권총을 든 복면강도로 변신한 그들은 인질극까지 벌이며 은행을 점거한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은행을 털고 837만원을 훔쳐 하와이로 떠날 수 있을까?



영화_ 스파이 감독_ 이승준
출연_ 설경구(철수), 문소리(영희)
상영일_ 2014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이 김철수. 하지만 마누라 영희 앞에만 서면 찔찔 매는 평범한 남편이기도 하다. 하필이면 2세를 만들기 위해 받아 놓은 D-day에 의문의 테러가 발생해 태국 출장 명령을 받게 된다. 위험천만한 작전지를 종횡무진하는 철수. 그런데, 그 곳에서 철수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건 다음 아닌 마.누.래 심지어 잘생긴 의문의 사나이와 함께 나타나 철수의 애간장을 태운다. 국가의 운명이 왔다갔다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의문의 남자 앞에서 마냥 좋아라 하는 영희 때문에 도대체 작전에 집중이 안 되는 철수! 과연 철수는 나라도 지키고, 마누라도 지킬 수 있을까?



영화_ 강철대오 감독_ 육상호
출연_ 김인권(강대오), 유다인(서예린)
상영일_ 2014년 10월 22일

중국집 배달부 강대오는 연애 한번 못해본 모태 솔로다. 짜장면을 배달하며 첫 눈에 반한 여대생 예린을 짝사랑하고 있지만 그녀의 남사벽 스펙에 가로막혀 고백 한번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어느 날, 예린의 생일 파티가 있다는 첩보를 주워들은 대오는 용기를 내어 생일 파티 장소로 달려간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 그 곳은 소위 잘 나가는 대학생들은 다 모여 있다는 민주화 운동의 현장! 학생들의 사이에 끼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던 대오는 이왕 내친 김에 예린의 이상형인 학생운동권의 전설적 혁명 투사를 사칭하며 예린의 마음을 사로 잡기로 결심하는데... 평미남 강대오, 과연 이 땅의 연애 민주화를 장취할 수 있을까?



영화_ 수상한 그녀 감독_ 황동혁
출연_ 심은경(오두리), 나문희(오말순)
상영일_ 2014년 10월 29일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인 욕쟁이 칠순 할매 오말순은 어느 날,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독립(?)시키려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밤길을 방황하던 할매 말순은 오묘한 불빛에 이끌려 '청춘 사진관'으로 들어간다. 난생 처음 곱게 꽃단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차창 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오드리 헵번처럼 썩안 피부, 날렵한 몸매... 주름진 할매에서 탱탱한 꽃처녀의 몸으로 돌아간 것!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젊은 모습에 그녀는 스무살 '오두리'가 되어 빛나는 전성기를 즐겨 보기로 마음 먹는데...

이제까지의 아침들에게 참 낮선 아침

글_ 고민성

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유일한 것이라 하길래, 계절 또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살았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노숙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닥 좋지 않다. 괜히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행색이 납루하다 하여 꺼림칙하다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그들은 남들보다 혹독한 잣대에 의해 평가된다. “게을러서 노숙인이 되었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기도 힘들다.

‘낮선아침’은 노숙인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한때는 가족과 가정을 가진사람이다.”라고 강조한다. 낮선아침 수기 중 『그들의 사물함에는』 글 중 “사물함을 비우다 보면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옷, 가족사진이 발견된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반인과 노숙인이라는 흑백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 봐왔던 것은 나였을 뿐이다.

김원석 시인의 달이라는 시를 보고 있으면 그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빛으로 가득 차있지만 반쪽뿐인 세상에서 벗어나 밤마저 포용한다. 왜 그렇게 빛에서 아등바등 살았나 하는 공감을 이끌어낸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며 살고 있기도 하다.

노숙인은 이분법적 잣대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으며, 그에게 뻗어오는 손길이라고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아닌 그저 노숙인을 취재하려는 손길이었다.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을 배척하고 있었던 나 대신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도움이 되어준 부산문화재단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내 주변을 돌보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아왔다. 내가 맞아왔던 아침들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가 없다. 개운하고, 때로는 피곤한 아침들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점철된 아침들이었다. 앞으로의 아침 역시 낯설어 질 것이다. 무관심했던 아침의 변화는 이제까지의 아침들에게 참 낯선 아침일 것이다.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중인 막 깨달은 꼬벌 **고민성**

작으나마 소중한 끈 낮선아침

글_ 윤란이

낮선 아침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내 눈을 사로잡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자신감이 없어지고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은 지금 까지 산다고 아등바등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철저하게 허무함을 느낀다고…….’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위기의 순간은 항상 찾아오고 그 순간을 어떻게 헤치고 넘기느냐에 따라 다음번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무서운 맹수를 만난 것처럼 사지가 떨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눈에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앉아 있어도 맨홀 속에 빠져있는 듯한 착각에 ‘사람 살려요’란 말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났을 때고 있다가 꾸역꾸역 ‘집’으로 가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누워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으면 끓여서 억지로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무조건 입에 떠 넣으라고 했던 사골국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스스로 일어나 국을 끓입니다. 그랬습니다. 기운은 차려지는 게 아니고 억지로 차리는 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을 슬프게 하기 싫어서 그랬고, 내 가치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되었지 남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던 새파란 청춘에서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는 중년의 나이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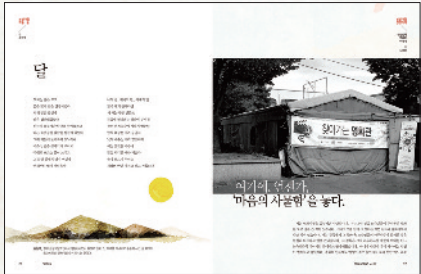
속없이 웃고 민폐 끼치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 모습은 점점 바보를 닮아 가고 있습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작으나마 소중한 끈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입니다. 어느 순간 크나큰 허무함에 힘이 빠져버려 손에서 놓아버린 소중한 것이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윤란이_ 부산문화재단 시민평가단이면서 문화나눔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키다리발 윤란이



낮선아침 7호 8p_ ‘그들의 사물함’



낮선아침 7호 26p_ 김원석 시인의 ‘달’



낮선아침 7호 4p_ ‘희망의 사물함’

2014년 희망자활사업단 (자활근로사업)

희망자활사업단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동구쪽방상담소와 동구지역자활센터가 연계하여 거리노숙인 및 기초자활기반조성이 필요한 대상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유지도모,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개요

- 참여대상 :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기초자활기반 조성이 필요한 사람
- 참여방법 : 매월 모집 공고 후 선정
- 근로형태 : 쇼핑백 제조업(경노무 중심)
- 근로시간 :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 (월20일 근무, 주차4일), 월차 1일
- 임 금 : 일당 29,300원/실비 3,000원

신청대상 및 신청내용

조건부수급자

동사무소 신청 → 구청 상담 → 부산고용센터교육(주1회, 4주) → 동구지역자활 gateway참여(4주) → 자활기초교육(1주) → 희망자활사업 참여 → (사후관리)

차상위계층

동사무소 신청 → 구청 상담 → 동구지역자활gateway참여(4주) → 자활기초교육(1주) → 희망자활사업 참여 → (사후관리)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건부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면 가능합니다.

교육내용

구분	부산고용센터	동구자활 gateway 과정	자활기초교육
교육 상세내용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집단레크레이션	자활통합교육 자기효능감교육 건강교육 창업교육 개인상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정신분석 심리검사 및 관계훈련 직업마인드 개별재무교육
교육기간	주1회(4주일)	4주일	1주일

사후관리프로그램

-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 : 위생관리, 현물급여 지급
- 전문강좌프로그램 : 알콜치료강의, 심리교육, 인문학강의, 인간관계회복강의, 건강강의
- 취업자활프로그램 : 취업강의, 신용회복강의, 구직처 연계
- 문화생활프로그램 : 유적지관람, 영화관람, 공연관람
- 주거지원프로그램 : 임시주거비지원, 생활용품 지급, 매입임대주택지원, 저촉관리

낮선아침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1. 노숙인 작품을 모집합니다. (시, 소설, 그림 등)
2. 노숙인 사진모델 구합니다.
3. 일반인 독자투고 받습니다.
4. 노숙인 분들을 달리 부를 이름 공모합니다.
※ 모두 소정의 원고료 있습니다.
문의_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T.051)745-7264
5. 노숙인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문의_ 동구쪽방상담소 사례관리사업 T.051)462-2017

차이를 인정하는,
사이를 찾아가는 문화

제작 리뷰

장병윤 | 국제신문 논설위원, 낮선아침 편집고문

외신에 따르면 이번 여름 샌프란시스코에 '사위버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가 버스를 개조해 두 개의 개인욕실을 설치하고 따뜻한 물과 깨끗한 변기, 샴푸 비누 수건 등을 노숙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답니다. 지저분한 모습 때문에 원가 상황을 호전 시키려 해도 방법이 마땅찮았던 노숙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지긋지긋한 여름을 나면서 부산에도 노숙자를 위한 사위버스가 하루빨리 등장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재안 | 부산 동구쪽방상담소 상담사, 낮선아침 편집위원

항상 낮습니다. 마주본다는 건 더욱 그러하지요. 매일 밥을 먹고 이웃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먹고 고민하지만 다시 금 뒤돌아서면 항상 낮습니다. 일상 하나하나가 같아 보이지만 날마다 새롭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지나감의 연속인지라 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시 낮습니다. 그래서 기대되고 설렘의 감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선 느낌은 새로운 기대로 작은 메아리가 됩니다. 흐르는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처럼 항상 기대하며 낮선 삶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마주보고 서로의 얼굴 표정을 대하면서

최주호 | 부산 금정희망의집 관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변하고 낮선아침이 행복한 아침이 되기를...

김현수 | 낮선아침 편집위원

지금 당장 얼굴이 굳어진 채로 지낸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렇게 생활을 하겠다. 내가 구부러져 있다면 내 그림자도 구부러져 있다. 그림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쫓을 수 없다. 결국은 나 자신이 똑바로 섰을 때 내 그림자도 펴진다.

박우신 | 낮선아침 편집위원

며칠 전 질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친구가 내가 있는 방에 찾아왔습니다. 외출 허락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요양원 생활에 대해서 장화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듣기만 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낮선 곳에서의 생활이 힘들지는 않은지 또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묻지도 않고 보내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추석 전 후 찾아가서 얼굴을 봐야겠습니다.

이민경 |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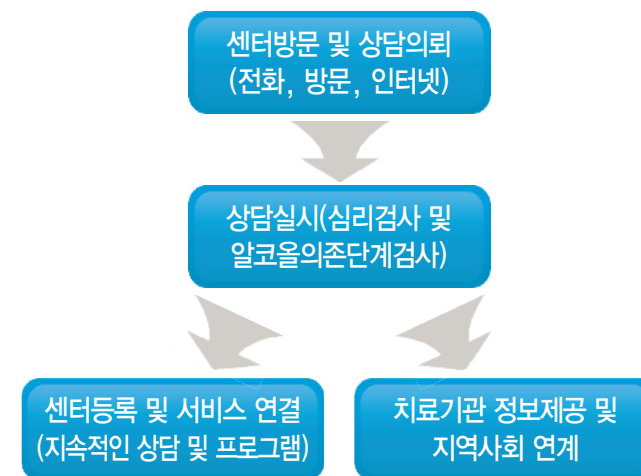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 삼오여관입니다. 삼오여관 단기 입주 작가 이민아 시인과 쪽방주인이 마주앉아 방뿔이를 마치고 나오는데 맞은편 여관에 과학수사가 현장검증을 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지정 · 부산대학교 병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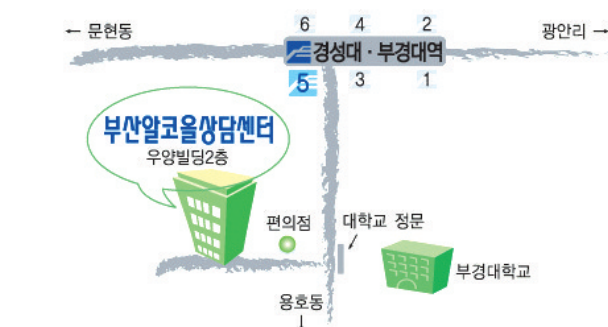
부산 알코올 상담센터

부산알코올상담센터는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방과 교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코올전문상담기관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센터 오시는길



교통안내

지하철 :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하차 (5번 출구) 도보3분

버 스 : 부경대학교 하차 10, 20, 22, 24, 27, 39, 131, 155

상담전화

(051)246-7570 / 246-7574 / 626-9918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1.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①전혀안마심 ①월1회미만 ②월2~4회 ③주2~3회 ④주4회이상
2.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까?
①한 두잔 ①3~4잔 ②5~6잔 ③7~9잔 ④10잔 이상
3. 한번의 좌석에서 소주 한 병 또는 맥주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없음 ①월1회미만 ②월1회 ③주1회 ④거의매일
4. 지난 일 년 간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없음 ①월1회미만 ②월1회 ③주1회 ④거의매일
5. 지난 일 년 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없음 ①월1회미만 ②월1회 ③주1회 ④거의매일
6. 지난 일 년 간 술을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마신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없음 ①월1회미만 ②월1회 ③주1회 ④거의매일
7. 지난 일 년 간 음주 후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없음 ①월1회미만 ②월1회 ③주1회 ④거의매일
8. 지난 일 년 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없음 ①월1회미만 ②월1회 ③주1회 ④거의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음 ④지난 1년간 있었음
10. 친척이나 친구,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당신에게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있지만 지난 1년간 없었음 ④지난 1년간 있었음

평가기준

남성 : 9점 이하, 여성 : 5점 이하 ⇨ 저 위험 음주군

남성 : 10~19점, 여성 : 6~9점 ⇨ 위험 음주군

남성 : 20~40점, 여성 : 10~40점 ⇨ 알코올사용장애 추정군